

SINCE 1986

선보가족

사훈 **항상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자**

SUNBO FAMILY



SUNBO Ind Co.,Ltd.

부산광역시 다대동 1517-2 TEL:051-261-3454 Http://www.sunboind.co.kr 2007년 12월 15일 토요일 | 제47호

경축 선보 전사 매출 1천억 달성!



지난달 30일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하이텍(주) 3사는 올해 매출 1천억원이라는 목표를 무려 한 달이나 앞당겨 달성하는 위업을 이룩했다.

본사 최금식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는 열정이 빚어낸 오늘의 쾌거는, 영업에서 납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선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선보인 모두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결실"이라며, 모든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본사는 올해 매출 1,000억 달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우

뚝 성장하였고, 내년에는 매출목표 1,500억원 달성과 더불어 선보 VISION 2012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본사는 매출목표 달성을 기념하고 가정에서 내조를 아끼지 않은 가족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금일봉을 지급했다.

연말선물 양복지급



우리 회사는 지난달 30일 연말 선물로 양복을 지급했다. 특히 1천억 달성이라는 올해의 매출목표를 한 달이나 앞당겨 달성한 쾌거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그 기쁨이 두배가 되었다.



부산마라톤 대회 참가



지난달 18일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제 9회 부산마라톤 대회에 본사 직원들이 참가했다. 다대표해수욕장에서 신평역 근처를 반환해 다시 다대표해수욕장으로 돌아오는 10km코스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의 계기가 됐다.

대회에 참가한 김동식 사원은 "마라톤 당일 날씨가 너무 추웠다. 생각보다 결과는 좋았지만 마라톤 경기가 끝난 후 감기에 걸려 고생했다"고 말하며, "입사한 후 직원들이 함께하는 마라톤 대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는데 마라톤 경기는 하면 할수록 중독성

이 있는 것 같다.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회사 직원들과 친목도모를 할 수 있어서 좋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식 사원에 이어 사내 3등의 기록을 남긴 김수환 사원은 "마라톤 대회는 5번 정도 참가했는데 평소엔 운동을 하는 만큼 기록단축을 위주로 한다. 오랜만에 참가한 대회에서 좋은 기록이 나와서 기쁘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기록에 관해서는 경쟁력을 길러준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했다.

'미완성'의 경영혁신 그 끝없는 지평선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때

5S 현장 혁신 활동이 시작되고 3개월 동안 공장은 많은 변화를 꾀하였다. 정리, 정돈, 청소, 정렬, 습관화로 연결되어 반복되는 5S의 활동성과는 눈에 띄게 볼 수 있다. 5S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종결되고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요요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있어서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우려'일 뿐 기정사실이 아니다. 극복해야 할 경영혁신의 한 가지 과제이다.

지난달 TOP 점검 시 장명우 상임 고문은 "이제 기초 5S활동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이다. 모든 현장에서는 언제나 정품, 정위치, 정량을 생각하며 행동해야 할 것이다. 5S활동에는 완성형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혁신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속적으로 꾸준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5S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PI 경영혁신과 관련하여 9개의 'PI(PROCESS INNOVATION)' Project팀이 지난 10월 3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PI(PROCESS INNOVATION)'이라는 용어 및 개선방식을 적용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의 순서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프로세스 관점을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각 프로세스별로 이행되어야 할 일들을 구상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실천할 프로세스에 대한 전사적인 관심과 함께 정해진 표준대로 시행 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활동으로 보다 나은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앞으로 PROCESS를 합의하고 표준화시키며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등 단계적으로 'PI(PROCESS INNOVATION)'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당사 최금식대표, 김해교육청 감사패 수여

2007년 12월 7일, 당사 최금식대표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김해 한림중학교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학생들의 사기진작과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으로 김해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당사 최금식 대표는 모교인 김해 한림중학교 학생들 중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꾸준히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밝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 기증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로부터 "선배님의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며, 선배님의 애정을 후배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훌륭한 선배가 될 것"이라며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영광스런 오늘, 최금식 대표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소중한 감사패를 받았으며, 앞으로 더욱 더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대2공장 소개



우리 회사는 매출 증대와 신규 아이템을 생산하기 위해 다대 신규공장을 설립했다. 신규공장은 가로 25m, 세로 90m에 달하는 건물 2동과 셀타 1동 등 총 3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5000평의 규모로 설립된 이 공장은 바닥을 예뻐서로 깔아 깔끔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입사원 소개



본 사 : 문해기, 장철호, 김동관, 신기철, 김정규, 박경열, 고영창, 장성훈, 유민수
유니텍 : 곽봉재, 김삼열, 이기환, 윤태웅, 허수



四季가 아름다운 그곳, 경주



이번호에서는 사계절이 아름답고 포근한 경주를 소개하려 한다. 경주는 부산에서 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멀지 않은 곳이다. 거리가 가까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공장이 없어서 자연 그 자체를 만끽할 수 있다. 또한 천년의 신라 역사가 숨 쉬고 있어 시내 자체가 커다란 박물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보는 이에게 많은 볼거리와 자녀들의 학습 소재를 선사한다.

이번 호에서는 경주 곳곳의 설경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경주'의 빼놓을 수 없는 관광명소인 불국사. 불국사는 사계절 중 가을이 가히 그 으뜸이라 할 만큼 유명한 곳이다. 하지만 겨울 눈이 덮힌 불국사는 가을 이상으로 아름다운 설경을 보여준다. 또한 경주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토함산은 동해에서 해 뜨는 모습까지 볼 수 있으며 석양이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기도 하다. 몽글몽글하게 생긴 산 모양은 보는 이가 이따금 고향에 돌아온 듯 편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문무 대왕릉비 역시 죽어서까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호이 깃들여져 있어서 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경

의를 표하게 하는 동시에 신라기술에 대한 감탄이 절로 흘러나오게 하는 곳이다. 주위의 갈매기들과 어우러진 이 풍경은 눈으로 간직하기에는 아까울 만큼 아름답다. 불국사, 토함산, 문무대왕릉비와 더불어 거처야 할 곳이 있는데 그 곳은 '필레니엄 파크'다. 도시 전체가 유적지로 가득한 만큼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시키는 것은 물론 딱딱하지 않은 역사 체험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훼손되지 않은 자연과 오랜 역사가 숨 쉬는 곳, 모두가 움츠리는 겨울에 정겨움과 따뜻함으로 가득 한 경주로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



경품 응모권

보내는 사람 소속: 이름:

이번 사보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뒷면 들린 그림 찾기의 정답과 함께 응모함에 넣어 주시면 추첨을 통해 10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_____
- 앞으로 사보에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_____
- 사보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기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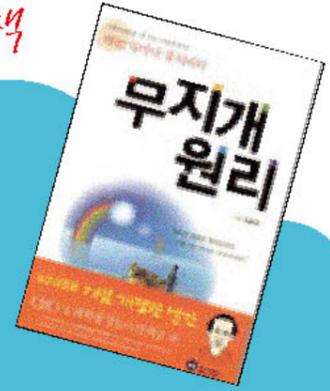


최홍렬상무의 **이한권의책**

무지개 원리

이 책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그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서다. 총 21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장마다 김복태 선생의 재미있고 핵심적인 삽화와 함께 전체 요약이라 할 수 있는 '행복 가이드'와 실천 지침인 'I CAN DO IT'이 요약되어 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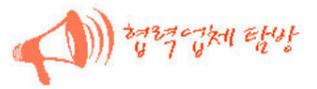
특히 이번 개정판을 통하여 독자들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원리적이고 통합적인 법칙이 자닌 힘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평생을 동반하는 생존의 지혜를 배우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또한 홈페이지 사보게시판에 글을 남겨 주신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이달의 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달에는 추첨을 통해 관리부 이동하대리, 실계부 오창배기사, 생신부 최재호과장, 실계부 황제현기사, 관리부 윤강재과장이 이달의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이달의 책은 경비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읽고싶은 분들은 자유 대출 하세요.

될성부른 떡잎의 조건 '가능성'



대림엔지니어링

대림 엔지니어링은 배관 파이프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다. 대림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에 설립된 신설업체다. 회사가 설립되고 2개월 후 선보와 긴 인연을 약속했다. 진제연 대표는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도 조선 관련 업체 일을 했고, 거기서 맺은 인연으로 회사 설립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선보와 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선보의 제품을 90% 생산하고 있는 대림 엔지니어링은 총 40여명의 직원들이 속해있다. 진제연 대표는 "적지도 많지도 않은 직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일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큰 장점이다. 물론 일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간의 '화합' 또한 중시되어야 한다. 비록 회사가 설립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서로간의 믿음과 화합을 통해서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능성을 품은 '도전'

'선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긴급'이라는 대림 엔지니어링 진제연 대표는 "선보가 지난해에 비해 물량이 늘어났으나 업체는 한정되어 있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제품들을 제작

해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그야말로 긴급 상태인 셈이다"라고 전하며 "하지만 직원들이 선보의 특성을 알고 그것에 잘 대처해 나가는 만큼 앞으로도 선보의 성장에 맞춰 우리 회사도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림엔지니어링은 내년 4월경 회사를 5000평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진제연 대표는 "회사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선보'일 수밖에 없다. 선보의 물량이 회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도 선보와의 거래에 큰 비중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매출 50억 달성에 힘쓸 것이라는 대림 엔지니어링은 신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전과 화합이 녹여내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진제연 대표는 "선보와의 거래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으면 한다. 더불어 끊임없는 노력으로 '가능성'이 '가능성'만으로 끝나지 않은 업체로 큰 발돋움 할 것"이라며 큰 포부를 내비쳤다.





리호 칭찬 릴레이

신용기 소장

배려가 빛어낸 '인품(人品)'

선보가족 21호 칭찬주자로 추천합니다. (추천인: 박희순)

항상 추진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하는 모습과 탁월한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칭찬 릴레이 21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여지껏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이러한 칭찬은 과분한 것 같아요. 칭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칭찬을 받으니까 쑥스러워요. 사실 본사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 사람인데도 이렇게 칭찬해주시니 칭찬해주시는 분은 물론 같이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해요. 일이란 게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일한 사람이 제가 편하게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준만큼 다음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일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일하는데 많이 부끄럽네요.

평소 어떤 마음 자세로 근무하세요?

사실 저도 원래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어요. 본사에서 일하다 협력업체에서 일할 기회가 닿아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사와 협력업체 합해 거의 10년 동안 선보와 인연을 맺은 셈이죠. 그 시간 동안에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아요. 8년 정도 외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작업을 할 때 있어서 세밀함과 정밀함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 일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는 편이에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중요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시해요. 하려고 하는 것은 일이지만 여차피 일

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리 업무를 훌륭하게 처리했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일할 때는 세밀함과 정밀함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좋아해요.

22호 칭찬 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 주세요

22호 칭찬 릴레이는 정말 칭찬할 만한 사람을 추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변 분들께 설문조사를 했어요. 물론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정할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한 분이 선정되었는데 모두들 정말 칭찬할만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선보유니텍 자재운영팀의 박춘복 사원이예요. 박춘복 사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 3개월 동안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자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해요. 뿐만 아니라 긴급물량을 처리하는 능력도 탁월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항상 흔들림없이 일을 한다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에서 선보유니텍 박춘복 사원을 다음 칭찬 릴레이 주인공으로 추천해요.

특히합니다

본사 공장	입사기념일	구명 공장
생일	생일	생일
관리부	생산1팀	대경산업
윤강재(12/16)	채규민(1/9)	하민수(12/31)
류정희(12/19)	생산2팀	이동석(1/1)
구매부	장상권(12/26)	박경철(1/5)
장동근(1/4)	전철민(1/1)	한동근(1/7)
사내물류	생산3팀	윤동근(1/10)
김기주(12/23)	김오석(12/16)	대한엔지니어링
조경선(1/9)	이상하(1/1)	최대량(12/29)
생산1팀	김병호(1/1)	명상산업
임혁민(12/21)	지용천(1/1)	송정호(12/27)
이장모(12/27)	김복자(1/1)	장기석(12/27)
생산3팀	오정용(1/1)	정용수(12/31)
신승훈(12/18)	이영갑(1/1)	오상호(1/10)
김복자(12/27)	배희진(1/2)	하보선(1/15)
강현욱(12/27)	이영동(1/3)	생산관리부
정형구(12/29)	이희종(1/10)	윤동남(1/7)
김정민(1/9)	생산관리	입사기념일
생산3팀(금천)	김종섭(1/1)	설계부
고영복(1/6)	설계부	김황중(1/13)
설계부	박규태(1/1)	품질보증부
홍기원(12/21)	결혼기념일	김현우(1/1)
신인호(1/6)	김수환, 이은정	결혼기념일
영업부	(12/9)	안병연(12/9)
유우성(1/4)		
품질보증부		
이창면(1/5)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생생 현장의 소리

'첫 항해', 그 설렘을 품은 '열정'으로

신입사원 신기철, 유민수, 김정규, 장성훈

선보에 입사한지는 얼마나 됐는지, 입사하게 된 계기는?

저희가 선보에 입사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입사'라는 말조차 어색한 '실습생'이예요. 저희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사했어요. 지난 방학 때 학생의 신분으로 '인턴제'를 경험한 후 졸업생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경우도 있고, 주변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의 추천으로 입사를 결심한 경우도 있어요. 또 전공과 관련된 취직을 생각하다가 입사하기도 했어요. 아직은 세부적인 각자의 분야를 떠나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일의 흐름을 읽어내려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는 중이예요.

어떤 일을 하는지, 짧은 기간 동안 일을 해본 소감은?

아직은 일 한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서 아는 것 보다는 모르는 것들이 더 많아요. 한 달 후에 각자의 분야로 발령이 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지금은 일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하죠. 이제 학교를 떠나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실감이 나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싶은 것도 많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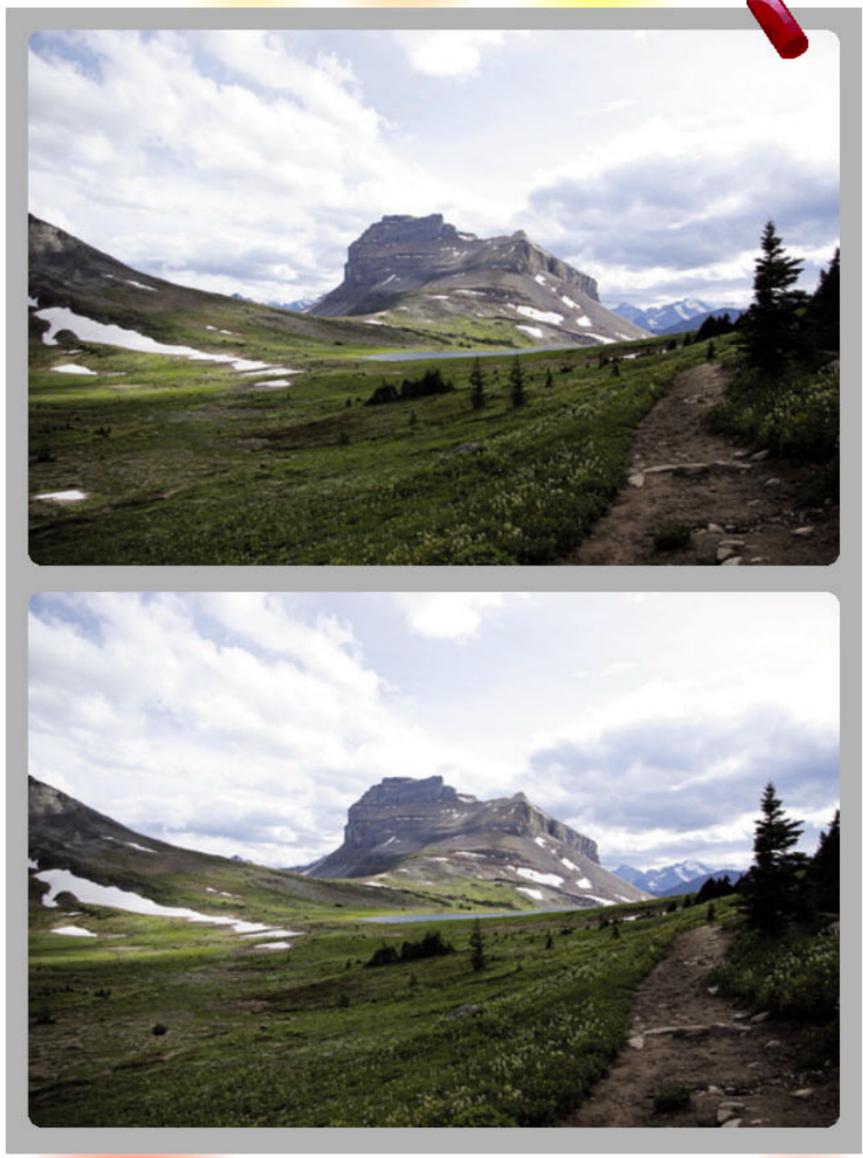
짧은 기간이지만 일하면서 사람들 사이라든지 사람들과 회사 사이라든지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사소

한 일이지만 아직 '실습생'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 혹은 저희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모두 하나같이 저희들을 '배려'해 주셨어요. 가족같이 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하게 대해주세요. '회사'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면 왠지 냉혹한 현실이 닥치고 그럴 것 같은데 직접 겪어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진 셈이죠. 그리고 '선보'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늘 힘쓴다는 것을 알았어요. 직원들의 사소한 행사를 회사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신입사원으로써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을 할 때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관심을 주의해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선보'는 여러가지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안전을 중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환경에서 부족한 지식과 현장경험 기술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알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채워나가야죠. 또 일을 할 때에도 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만큼 혹은 다른 사람들 보다 뛰어난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최종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고 싶어요.

틀린 그림 찾기(5개)



'선보가족'은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가족들의 편지나 자녀의 일기, 여행 이야기 등...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먹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051-260-5535 011-7435-3454 윤강재 과장